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공공개방시설 개방 공유서비스 운영

정읍시는 공공개방자원 통합 플랫폼 공유누리를 통해 공공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유누리 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 등을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공공자원 개방시설 실태 조사와 일제정비를 통해 문화시설 주차장 대여 물품 등 268건의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등록을 마쳤다.

공유누리 시스템 내에는 이용 가능한 공공개방자원 뿐 아니라, 해당 자원의 담당자 연락처, 주소 등 자원 이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이 등록돼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3년 제4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이날 심의에선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군 경, 해경, 소방,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곰소저수지 축제와 부안붉은노을축제 등 2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에서는 행사별 계획과 세부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행사 진행에 따른 인구밀집(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과 가연성 물질사용(불꽃놀이)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은은한 가을 정취 만끽'

제16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8일 개막식 장민호·박강성 축하공연... 먹거리 볼거리 풍성

제16회 구절초꽃축제가 전북 제1호 지방정원인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을 배경으로 5일 개막했다.

구절초 지방정원은 2006년 조성된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찾아가는 구절초 여행명소로, 이곳의 아름다운 솔숲 구절초 풍경과 산골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11일간 축제가 이어진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구절초 정원 개화율은 35%로 만개 예상일은 오는 12일 쯤이다.

오는 8일 오후 5시에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김다현, 7080 감성음악의 대표가수 박강성 등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축제에는 아름다운 구절초 풍경 뿐만 아니라 소나무그늘림터에서 힐링을 향유하는 솔숲잔, 물결정원 내 공간활용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만들기, 구절초를 활용한 즉석체험, 구절초 꽃문양 페인스테인팅, 반려화분 만들기 등 정원형유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신청해 심사하고 전시하는 '구절초 사진공모전', 전문 DJ가 선보이는 아름다운 사연과 음악이



제16회 구절초꽃축제가 전북 제1호 지방정원인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을 배경으로 5일 개막했다.

있는 '사랑의 방송곡',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한바탕 공연', '구절초 기념사진 무료인화' 등 서정과 재미, 건강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구절초 꽃축제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짙어어와 잔디광장~틀꽃정원~물결정원으로 이어지는 꽃열차도 운영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길거리 꽃공간과 꽃탑이 설치된 포토존, 구절초 꽃길 아간조명 등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도

조성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다. 구절초 두부김치, 산채비빔밥, 수수부꾸미, 다슬기 칼국수, 한우 등 정음다운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시는 품평회와 가락협회를 추진하는 등 맛과 가격에 신경을 기했다.

이학수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구절초 꽃축제의 아름다운 풍경에 정음의 맛과 넉넉한 인심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추석 특판전 성황

특판행사 총매출액 3억6800만원 달성 작년 추석 대비 2배 성과 달성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이 고물가 등에 따른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 9월 20일부터 일부터 28일일까지 9일간 간 직매장과 행복장터에서 로컬푸드 추석특판 행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300여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200여품종의 농수산물을 직매장 2곳과 온라인을 통해 총 매출 3억 6800만원을 달성했으며 작년 추석 대비 2배 정도의 매출 신장을 이뤄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특판전이 한창이던 지난 27일 하루에만

4600만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일매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고물가 및 어려운 경기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추석식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배지한 혼합과일세트 등 히트상품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대응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고창군이 구제역 예방과 유입 차단 을 위해 10월18까지 2주간 소·염소 867호/51,882(소 811호/4만6653두, 염소 56호/4418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자가접종하고, 소 50두·염소 5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 지원한다.

아울러 하반기 일제접종에는 도 지원을 통해 유기축산농가(20호/3441두)와 동물복지인증농가(1호/223두)에 백신을 무상공급한다.

이 중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예정이

다.

예방백신 접종 후 4주후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패테료 부과 등 개선될 때까지 관리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상봉)와 함께 5일 동리국악당에서 사회복지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고창군, 동리국악당서 사회복지인의 소통·화합·성금 전달식

고창군은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상봉)와 함께 5일 동리국악당에서 사회복지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장과 사회복지 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했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1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어려운 이웃 5명에 대한 행복한 나눔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조상봉 협의회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사회복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함께 만들어가 가기 위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그동안 어려운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역의 복지가 발전될 수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창군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6년 2월에 창립해 고창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3년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개최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하순례)가 주관하는 '2023년 양성평등 한마음대회'가 5일 부안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여성 단체 회원을 비롯한 관내 군민 및 내빈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축전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체육대회가 이어졌다.

여성단체협의회 하순례 회장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여성 리더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양성평등 한마음대회를 통해 13개 읍면 여성단체 회원들의 열정이 차별과 편견과 불평등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